가정의 달 문화행사 풍성

익산시, 29~30일 놀 권리 행사·내달 5일 어린이 날·6일 온 가족 도란도란 놀이세상 등

아동친화도시 익산시가 가정의 달을 앞두고 아이들이 즐거운 다채로운 문화 및 놀이행사가 풍성하게 펼쳐진다.

시는 아동친화도시 놀 권리 확보를 위해 '우리아이 충·전·소(충분히 쉬고 놀면서 전해지는 소소한 행복 놀이터)'가 29~30일 이틀간 진행된다.

익산 예술의전당에서 오전 11시부터 오후 3시까지 개최되는 이번 행사는 야외무대에서 오프닝공연으로 버블쇼와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 퍼레이드'로 한껏 흥을 돋굴 예정이다.

부스에서는 소공연'로미오와 줄리엣 인형극'을 관람할 수 있다. 야외공연장 주변으로 아동권리 및 아동학대예방 홍보부스, 추억놀이 체험부스, 아나바다 플리마켓 등을 운영한다. 부스 투어를 완주한 아동들에게는 소정의 홍보물품을 증정한다.

행사 참여는 별도 접수없이 행사 당일 오전 10시까지 익산예술의 전당 야외무대로 방문하면 가능하다.(문의 아동보육과 ☎859-7413)

제101회 어린이날인 다음 달 5일에는 어린이들이 행복하고 신나는 하루가 되도록 다양한 행사가 준비된다.

우선 중앙체육공원에서 오전 11시부터 오후 4시까지 (사)새벽이슬 주관으로 제28회 익산어린이날 큰잔치가 열린다.

아동친화도시 익산시가 가정의 달을 앞두고 아이들이 즐거운 다채로운 문화 및 놀이행사가 풍성하게 펼쳐진다.

이날 행사에서는 '가족 사랑의 날, 우리 모두 한가족'이란 주제로 우리 모두 한가족 이벤트(가족오락관, 가정의 달 사연 접수), 특별체험(드론촬영체험, 미니축구, 3D 프린터 체험), 캠페인 부스(아동친화도시 아동권리 홍보, 청소년 육성기금 만들기)가 펼쳐진다.

또 원광대학교 소운동장에서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2시까지 (사)삼동청소년회 주관으로 제37회 솜리 어린이 민속 큰잔치가 열린다.

'모여라 꿈나무 어허 덩더꿍!'이란 주제로 우리의 전통 민속놀이마당(투호, 굴렁쇠 굴리기, 공기놀이, 제기차기), 참여마당(다문화체험, 탁본, 장애체험)이 펼쳐진다.

익산시 육아종합지원센터는 6일 영유아 어린이들을 위해 '온 가족 도란도란 어린이 놀이세상' 행사를 개최한다.

영유아 맞춤형 놀이 체험 축제로 어린이뮤지컬, 오감만족 놀이, 요리, 숲, 에어바운서, 플리마켓 등이 진행된다.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가족센터, 글로벌문화관, 아동보호전문기관, 원광보건대학교 등 다양한 유관기관들이 참여해 영유아의 눈높이에 맞춘 체험 프로그램을 준비한다.

프로그램은 사전 접수 프로그램과 현장 당일 접수 프로그램으로 운영되며, 사전 접수 프로그램은 익산시 육아종합지원센터 네이버 플레이스에서 이달 25일 10시부터 예약가능하다.

/익산=이재춘기자

정헌율 익산시장이 익산형 IT 밸리 조성을 추진하기 위해 한 걸음 나아간다.

"낙후된 원도심 기술창업 메카로"

정헌율 시장, 판교서 '익산형 IT밸리' 구체화

정헌율 익산시장이 익산형 IT 밸리 조성을 추진하기 위해 한 걸음 나아간다.

정 시장은 24일 판교 경기스타트업캠퍼스를 방문해 최병희 K-ICT창업멘토링센터장, 심재희 씨엔벤처파트너스(유) 대표, 전화성 씨앤티테크(주) 대표와 함께 면담을 가졌다.

이날 회의는 익산형 IT 밸리 조성을 추진하기 위한 본격 회의로, 익산형 TIPS(민간투자주도형 기술창업지원) 프로그램 운영을 주제로 참여자들 간 논의가 뜨겁게 이뤄졌다.

이어 정 시장은 판교 테크노벨리 운영현황에 대해 전반적인 설명을 듣고, 경기스타트업캠퍼스 시설을 본격 투어했다.

마지막 일정으로는 국내 벤처 1세대 기업 중 통신 장비 분야에서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한 다산그룹의 남민우 회장과 만나 환담을 진행했다.

시는 다산그룹·벤처기업협회·한국청년기업가정신재단·원광대 등과 IT 분야에 최적화된 청년 인력 양성에 협력해 우수한 지역 청년과 외국인 유학생을 유치해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이들이 지역 기업에 취업할 수 있는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 중이다.

청년 창업기업 성장을 위한 멘토링, 스타트업 기업을 지원할 벤처캐피털 발굴도 추진해 청년 일자리 창출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정헌율 시장은 "익산은 청년들의 취·창업을 책임지고 있는 대한민국 1호 청년시청을 비롯해 원광대, 연구기관 등을 탄탄하게 갖추고 있어 IT 산업 발전 가능성이 충분하다"며 "낙후된 원도심을 기술창업의 메카로 개혁하여 새로운 미래를 창출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익산=이재춘기자

정헌율 시장, "내년도 국비 확보 총력전 펼칠 것"

익산시, 세종시서 국비 확보 위한 현장 전략회의… 정치권 공조 체계 강화 주문

정헌율 익산시장이 미래 먹거리 발굴을 위한 내년도 국가예산 확보에 행정력을 총동원할 것을 당부했다.

정 시장은 24일 열린 간부회의에서 "원활한 현안사업 추진과 지역 발전 동력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국가예산 확보가 필수적이다"며 "그동안 선제적으로 준비해 왔지만 이번 주 개최되는 전략회의를 토대로 국비 확보 총력전을 펼쳐달라"고 전했다.

이어 "국·소·단장을 중심으로 신규사업은 물론 시가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사업까지 꼼꼼히 챙겨 부처 예산 반영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강조했다.

시는 내년도 국비 확보를 위한 선제적 대응의 일환으로 오는 26일 정헌율 시장과 국·소·단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정부 부처가 모여있는 세종시에서 현장 전략회의를 개최한다.

이를 통해 향후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지역 정치권과 공조 체계를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더불어 정 시장은 오는 5월 12일부터 도내 각 시군에서 개최 예정인 전북아시아·태평양 마스터스대회 준비를 철저히 할 것을 지시했다.

정 시장은"이번 대회는 익산을 전 세계에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며"익산을 찾은 대회 참가자들이 불편함을 겪지 않도록 숙박과 음식점, 안전 문제 등을 철저히 점검하고 준비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지시했다.

특히 전 세계에서 선수들이 방문하는 만큼 시가 운영하는 종합상황실을 중심으로 성공적인 대회 추진을 위해 최선을 다해 달라고 거듭 당부했다.

/익산=이재춘기자

전주매일 전자신문
www.jjmaeil.com

군산시 서수배수지 신설, 관말지역 출수 불량 해결

군산시가 서수면 지역의 출수 불량을 해결하기 위해 서수면 관원리와 화등리 일원에 서수 배수지 건설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군산의 동쪽 끝에 위치한 서수면은 조촌동에 있는 군봉배수지와 대야면에 있는 대야 배수지에서 수돗물을 공급하고 있으나 그간 물 복지 사업으로 인한 농촌지역 수도 사용자 증가와 ㈜동우 등 수돗물을 많이 사용하는 기업이 입주해 갈수록 수돗물 사용량이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이에 따라 명절, 김장철 등 수돗물을 많이 사용하는 기간과 수돗물 다량 이용 기업의 수돗물 사용 시간이 겹칠 경우 수압이 내려가 수돗물 공급에 어려움이 발생해 인근 주민들의 수돗물 이용 불편이 발생하곤 했다.

그간 시는 소규모 가압시설 7개소를 설치해 서수면 출수 불량지역 주민의 식수 이용 불편을 해소했으나 보다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총 47억4,000만원을 투자, 250톤 규모의 배수지를 설치와 더불어 송·배수관 10km를 매설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 2019년 9월에 수도정비 기본계획에 본 사업을 반영했으며 2021년 8월 송·배수 공사를 시작해 2023년 10월까지 관로공사를 완료할 예정이다. 5월부터 250톤 규모의 배수지 공사를 추진해 2024년말 공사를 완료할 계획이다.

/군산=이재춘 기자

지역 소식통

익산형 신혼부부·청년 주택자금이자 금리 인하

익산시가 신혼부부·청년들의 내집 마련을 돕기 위해 운영하는 '익산형 주택금융지원'의 기준 대출금리가 인하된다.

'익산형 신혼부부·청년 주택임차보증금 대출이자지원' 사업의 대출금리가 인하되면서 지역 신혼부부 및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시는 시중은행 대출금리의 급격한 상승으로 청년 및 신혼부부의 이자부담을 낮추기 위해 한국주택금융공사 및 협약은행과 적극적으로 협의하여 대출(가산)금리를 한시적으로 0.5% 인하하는 결정을 이끌어냈다.

시는 24일부터 신규접수자에 한해 협약은행인 NH농협은행 및 전북은행 대출상품에 인하된 금리가 적용될 예정이다.

지원대상은 익산시민 또는 익산시로 전입 예정인 만 19~39세의 무주택 청년 또는 신혼부부로, 전용면적 85㎡ 이하이면서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의 주택에 한해 연 3% 이자를 지원한다.

/익산=이재춘 기자

군산시, 수도 정비계획 변경 용역 착수

군산시가 양질의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수도정비계획 변경 용역을 추진한다.

수도 정비계획은 국가 수도기본계획을 바탕으로 수도의 정비에 관한 계획을 10년마다 수립하고, 5년마다 타당성을 재검토해 변경하는 행정계획이다.

이번 계획은 지난 2019년 8월 수립한 수도 정비계획의 타당성 등을 재검토해 수도시설을 적정하고 합리적으로 설치·관리하는데 목적이 있다.

특히 지곡동 일원 기반시설부담구역 지정 및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 추진 등 군산시 여건 변화에 따른 상수도 공급, 정비계획을 변경 반영함으로써 급변하는 도시개발상황에 대비할 예정이다.

시는 올해 상반기 중 용역에 착수해 환경부 협의·승인 절차를 거쳐 2024년 초 수도 정비계획 변경을 완료할 예정이다.

/군산=이재춘기자